KIA 선수들 "팬을 믿는다"

프로야구 올스타전 팬투표 시작…나성범·소크라테스·정해영 등 기대감

나성범

소크라테스

정해영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우리 팬들을 믿는다"며 7월 16일을 기다리고 있다.

KBO 올스타전 팬투표가 8일 시작됐다. 코로나19를 딛고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별들의 잔치'를 앞두고 벌써 분위기가 뜨겁다.

각 팀 야구팬들은 투표권 행사는 물론 '후보 홍보' 활동에도 나서면서 다시 찾아온 잔치를 반기고 있다. 팬들 앞에 '별 중의 별'로 서려는 선수들도 적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KIA에서는 양현종(선발투수), 전상현(중간투수), 정해영(마무리투수), 박동원(포수), 황대인(1루수), 김선빈(2루수), 류지혁(3루수), 박찬호(유격수), 소크라테스·나성범·김석환(이상 외야수), 최형우(지명타자)가 후보로 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각 구단이 포지션별로 추천한 후보들은 팬 투표(70%)와 선수단 투표(30%)를 거쳐 '베스트 12'에 선정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프로 생활을 시작한 정해영에게는 '꿈의 무대'.

KBO리그 세이브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마무리 정해영은 "꼭 뽑히고 싶다. 많이 뽑아주시면 좋겠다"고 팬들의 적극 지지를 당부했다.

정해영과 팀의 승리를 지키고 있는 전상현도 "한 번도 안 가봤다. 꼭 가보고 싶다. 가고 싶기는 한데 내가 잘해야 한다. 잘해서 많이 뽑아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올 시즌 '타점 머신'으로 변신한 황대인도 간절한 마음으로 올스타전을 그리고 있다.

황대인은 "처음으로 해보는 것인데 가보고 싶다. 우리 팬들의 힘을 믿어보겠다. 나도 (나에게) 투표 해야겠다"고 웃었다.

KIA 상승세를 이끈 소크라테스도 중독성 강한 응원가로 올스타전 무대를 뜨겁게 달굴 준비를 끝냈다.

"나에게 투표해달라"며 웃은 소크라테스도 "팬들이 지금까지 많이 응원해주셨는데 똑같이 투표해주셔서 올스타전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팬들의 응원을 부탁했다.

두 차례 최다득표 타이틀을 차지했던 나성범도 설레는 마음으로 올스타전을 기다리고 있다.

나성범은 2014년 팬투표 최다 득표자로 올스타전 무대를 밟았고, 2016년에는 팬투표와 선수단 투표 합산 최다 득표의 영예를 안았다.

나성범은 "팬분들을 믿는다. KIA 팬들이 워낙 많아서 많은 지지를 해주신다면 올스타 베스트에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단은 내가 잘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세 번째 최다득표 도전에 대해서는 "최다 득표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좋지만 12명 안에만 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축제의 자리니까 좋은 추억 팬들에게 남겨드리고 싶고 KIA 선수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팬들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잘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한 KIA 선수들. 사령탑 김종국 감독도 '성적'을 강조했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잘하면 팬들이 좋아 해주시고 성원을 많이 해주신다. (팬투표) 스타트는 좋은데 아직 멀었다. 꾸준하게 성적 나면 많은 선수가 올스타전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팬 투표는 오는 7월 3일 오후 5시까지 KBO 홈페이지와 KBO 공식 앱 그리고 KBO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한 SOL(쏠)앱에서 진행되며, 선수단 투표(30%)를 합산해 베스트 12이 결정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살라흐 대결 무산되나

14일 한국-이집트 친선경기 앞두고 살라흐 부상

이집트 축구대표팀의 에이스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가 오는 10일(한국시간) 예정된 20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 에티오피아와 경기를 부상으로 빠진다.

8일 스포츠 매체 디애슬래틱에 따르면 이집트축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팀 기술 스태프들이 에티오피아전에서 살라흐를 쉬게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밀 검사 결과 (살라흐의 부상은) 가벼운 근육 염좌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합 갈랄 이집트 대표팀 감독은 지난 6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네이션스컵 예선 기니와 경기 후 살라흐가 부상을 입은 채 뛰었다고 밝혔다.

그는 "살라흐는 기니전 이전에 다쳤지만, 경기에 뛰겠다고 고집했다"면서도 살라흐의 부상 부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집트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과 오는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이 경기는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나란히 23골을 터트려 공동 득점왕에 오른 양국 에이스 손흥민(토트넘)과 살라흐의 대결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집트축구협회 임원은 앞서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살라흐는 기니, 에티오피아와 경기에는 참여한다"면서도 "기술 스태프가 결정할 일이라 한국과 친선경기에 참여할지는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결국 이 말과 달리 살라흐는 에티오피아전에 결장하게 됐다.

살라흐의 부상이 이어진다면 EPL 득점왕끼리 국가대표전도 무산될 수 있다.

한편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현지 영문 매체 이집트 인디펜던트는 살라흐가 에티오피아전에 빠지고 휴식을 취한 다시 팀에 합류해 한국과 경기에 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살라흐가 부상으로 잠시 대표팀에서 이탈해 이집트 동북부 휴양도시인 엘 구나에서 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살라흐는 부상 소식이 전해진 후 소셜미디어에 바다 위 요트에서 휴양을 즐기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연합뉴스

'홈 9연승 합작' 광주FC 허율·헤이스 '베스트 11'

허울

헤이스

광주FC의 시도민구단 홈 최다 연승을 합작한 허율과 헤이스가 베스트 11이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8일 '하나원큐 K리그2 2022' 19라운드 베스트 11을 선정,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충남아산을 상대로 각각 동점골과 멀티골을 장식한 허율과 헤이스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허율은 0-1로 뒤진 후반 28분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동점골을 장식했다. 시즌 4호골.

헤이스는 후반 39분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역전극을 연출했고, 후반 47분에는 환상적인 프리킥골까지 장식하면서 멀티골을 기록했다.

헤이스는 결정적인 순간 7·8호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경남 티아고(9골), 충남아산 유강현(8골)과의 득점 1위 싸움에도 불을 붙였다.

광주는 허율과 헤이스의 골로 3-2 승리를 거두면서 K리그 시도민구단 홈최다 연승인 '9연승'을 완성했다.

한편 19라운드 MVP는 김포FC와의 홈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 경남FC의 6-1 승리를 이끈 윌리안이 차지했다. 대승을 거둔 경남은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

베스트 매치는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하나시티즌과 전남드래곤즈의 경기가 됐다. 이날 선제골은 전남이 기록했지만, 경기는 대전의 3-2 승리로 끝났다.

◇K리그2 19라운드 베스트 11

▲MVP: 윌리안(경남) ▲FW: 허율(광주), 에르난데스(경남), 티아고(경남) ▲MF: 헤이스(광주), 이상헌(부산), 임덕근(대전), 윌리안(경남) ▲DF: 김재우(대전), 김영찬(경남), 황준호(부산) ▲GK: 손정현(경남) ▲베스트 매치: 대전(3) vs (2)전남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존슨도 PGA 등졌다

회원 탈퇴 하고 리브 골프 출전
가르시아 등 PGA 탈퇴 잇따라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24차례 우승하고 세계랭킹 1위를 오랫동안 지켰던 더스틴 존슨(미국)이 PGA투어에서 탈퇴했다.

PGA투어에 대항해 출범한 리브 골프에 합류한 존슨은 영국 런던 근교 센추리온 골프 클럽에서 열리는 리브 인비테이셔널 개막전을 하루 앞두고 고 8일(한국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PGA투어 탈퇴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PGA투어 회원 신분을 반납했다. 앞으로 리브 골프에서 뛴다. 그게 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존슨은 거액을 받고 리브 골프로 옮긴다는 소문이 난 지난 2월에 PGA투어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끝내 PGA투어를 등졌다.

"PGA투어에 감사한다"는 그는 "나와 내 가족에게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마음을 바꾼 배경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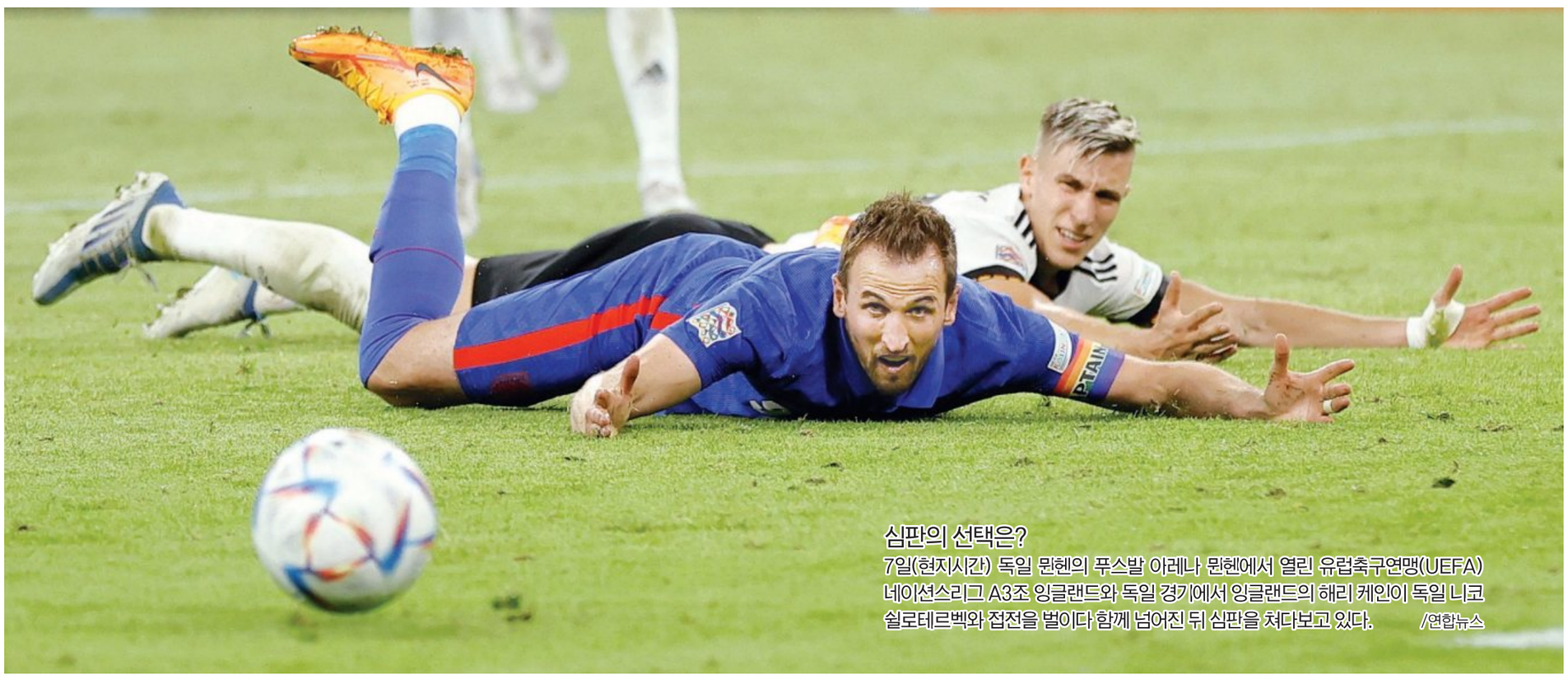
올해 37세인 존슨은 아이스하키의 전설급 선수였던 웨인 그레츠키(캐나다)의 딸 폴라와 결혼해 7살, 4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

리브 골프는 1년에 대회를 10번 이상 치르지 않으면서 컷 없이 거액의 상금을 주기에 한결 여유 있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

PGA투어 탈퇴로 앞으로 라이더컵과 프레지던츠컵에 나설 수 없게 된 존슨은 "세상은 변하는 법이다. 언젠가는 규정이 바뀌어서 두 대회에서 나갈 수 있다고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존슨에 앞서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케빈 나(미국), 샬 슈워츨, 브랜던 그레이스(이상 남아공)도 리브 골프에서 뛰려고 PGA투어에서 탈퇴했다.

/연합뉴스


심판의 선택은?
7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푸스발 아레나 뮌헨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A3조 잉글랜드와 독일 경기에서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이 독일 니코 쉴로테르벡와 접전을 벌이다 함께 넘어진 뒤 심판을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몸 회복 안됐다" 우즈, US오픈 출전 포기

"7월 자선 프로암 대회 나가고파"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오는 16일(한국시간) 개막하는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 US오픈 출전을 포기했다.

우즈는 8일 소셜 미디어에 "몸이 메이저대회를 치를 만큼 튼튼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US오픈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작년 2월 자동차 사고로 두 다리가 모두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던 우즈는 초인적인 재활을 통해 지난 4월 마스터스, 지난달 PGA 챔피언십 등 두 차례 메이저대회에 출전했다.

그는 두 번 다 컷 통과에 성공해 큰 응원을 받았다.

하지만 PGA 챔피언십 때는 다리가 너무 아프다며 4라운드를 치르기 전에 기권했다.

7월에 열리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디오픈에 출전할 예정인 우즈는 "디오픈 직전에 열리는 자선 프로암에도 나서고 싶다"고 덧붙였다.

US오픈을 주최하는 미국골프협회(USGA) 최고경영자 마이크 완은 "실망스럽기는 해도 그가 몸을 먼저 챙기기로 결정한 게 반갑다. 올해 US오픈 때 한번보다는 오랫동안 그의 경기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